

전남광주특별시, 청년과 함께 ‘권역별 청년정책’ 설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주도 정책설계 워크숍에서 청년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광주·동부·서부권 청년 140여명 ‘5*** 기본계획 수립 워크숍’

일자리·교육·주거·교통 등 권역별 격차 따라 청년정책 맞춤설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권역별 특성과 격차를 고려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설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일 오후 빛고을창업스테이션(스테이지) 다목적홀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년주도 정책설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광주연구원·광주청년센터·전남청년센터가 공동 주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정책 수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주와 전남의 청년정책을 단순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 권역의 특성과 청년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청년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마련 중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1년

까지 5년간 통합특별시의 청년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청년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며, 광주연구원이 올해 6월부터 연구과제로 진행 중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남광주 청년 140여명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과 권역별 청년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전남광주 청년정책의 미래상을 논의해 제시했다.

행사는 ▲권역별 청년 현안 및 정책 수요 ▲분야별 정책사업 검토·보완 및 신규 아이디어 발굴 ▲전남광주 청년정책 미래상 및 핵심가치 도출 등 3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청년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일자리, 교육, 주거, 교통 등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청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와 정책 수요를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권역별 청년 현안 및 정책 수요’와 관련해서는 광주권·동부권·서부권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체감하는 청년 문제와 원인을 살펴보고 일자의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임금·복지 수준, 경력성장 가능성 등 질적 측면과 거주 지역별 격차에 대해 논의했다.

‘분야별 정책사업 검토·보완 및 신규 아이디어 발굴’에서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별로 기존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보완·발전안을 제안했다.

‘전남광주 청년정책 미래상 및 핵심가치 도출’에서는 2031년 전남광주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청년정책이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

/이기영 기자

현대자동차, 코이카와 손잡고 가나 자동차 정비기술 인재 육성 나선다

현대자동차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과 함께 가나의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정비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일(현지시

간) 가나 아크라(Accra)에 위치한 알리사 호텔(Alisa Hotel)에서 코이카와 함께 가나 자동차 정비기술 인재 육성 프로그램 ‘현대-코이카 넥스트젠(Hyundai KOICA NextGen)’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재선 현대자동차 아중동권역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장, 우동완 코이카 가나 사무소장, 에릭 아즈로(Eric Kofi Adzroe) 가나 기술·직업교육훈련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코이카 넥스트젠’은 현대차가 코이카의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1]와 연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가나의 자동차 정

비기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현지 청년의 취업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현대차와 코이카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50억 원을 5대5 매칭 방식으로 공동 투자하며, 사업의 현지 실행은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 인터내셔널 코리아, 플랜 인터내셔널 가나가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와 코이카는 가나에 실습 정비소를 갖춘 자동

차 정비기술 교육센터 2개소를 설립·운영한다. 교육센터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현지에서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정비기술 교육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나 자동차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 산업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직업교육훈련(TVET)[2] 기관의 교육과정도 보완한다. 이를 위해 기존 내연기관

차 중심의 교육과정을 최신화하고,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 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신규 개발 교육과정은 가나 기술·직업교육훈련 위원회(CTVET)의 공식 인증을 거쳐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정비 전문 인력 양성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와 코이카는 현지 청년의 취업 및 창업도 지원한다.

/이기영 기자

